



제목	A Military History of the Ottomans: From Osman to Atatürk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Praeger
발행일	2009. 9. 23.
저자	Mesut Uyar, Edward J. Erickson
출판도시	Westport
페이지수	379
ISBN 또는 ISSN	978-0275988760

내용 요약

『오스만인의 군사사: 오스만에서 아타튀르크까지』는 오스만의 군사제도, 조직적 구조, 기술, 전략에 관한 책이다. 오스만 군대의 직업군으로서의 성장, 중요한 군사령관의 영향, 정치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 저자 우야르와 에릭슨은 이전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터키측 사료를 활용하였다. 저자들의 결론은 오스만 군대의 유산이 현대 터키 군대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1장은 ‘1300~1453년 중세 초기 동부의 군사 체제와 오스만 군대의 창설’, 2장은 ‘1451~1606년 고전기’, 3장은 ‘1606~1826년 변형과 개혁의 노력들’, 4장은 ‘1826~1858년 생존을 위한 싸움’, 5장은 ‘1861~1919년 종말의 시작’을 담고 있다. 1300~1700년까지 세계의 지배적인 군대로 평가받던 오스만 군대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공격에서 그 힘을 드러냈다. 그 이후 군대의 힘은 쇠퇴했지만 1918년 세력 균형에서 상당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저자들은 유목민의 기원을 가진 오스만은 군사제도의 변형과 당대의 최상의 국가와의 우호적인 경쟁에 유연한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19세기 중반 쇠퇴의 징후가 보일 때 술탄들은 제도 개혁과 권력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1606년부터 시작된 군대 개혁과 변혁은 1876년 오스만-러시아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비록 전쟁은 간단히 끝났지만 그 충격은 국가적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1918년은 그러한 긴장감이 너무 커서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1923년 아타튀르크가 죽어가는 제국을 새로운 터키 국가로 변형시킬 때 오스만 군대는 직업군 제도와 조직적인 구조를 가진 강력한 전투부대로 재탄생하였다.